

## SK그룹, 장애인 자활 IT 무료교육센터 개설

SK그룹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무료 IT 교육센터를 10월19일 추가 개설했다.

SK그룹의 IT 전문기업인 SK C&C의 사업적 특성을 활용해 성남에 문을 연 장애인 직업 자활용 무료 IT교육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자 2차 교육센터를 경기도 일산에 개원했다.

경기도 일산에서 가진 개원식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,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, 윤석경 SK C&C 사장 등이 참석했다.

장애인 직업 자활용 IT 무료교육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IT분야 취업을 돕는 사업이다.

SK C&C는 2004년부터 시작해 총 100여명을 교육했다.

SK C&C는 일산교육센터에 장애인을 위한 5개월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콘텐츠 과정과 닷넷 프로그램 과정을 만들어 각 회별로 30-4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.

이미 성남 장애인 무료 IT교육센터는 수료생 중 일부가 Web 디자이너 등으로 취업했고, SK C&C는 자체적으로 수주한 기상정보 DB 구축사업 등의 사업에 수료생 일부를 고용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21>